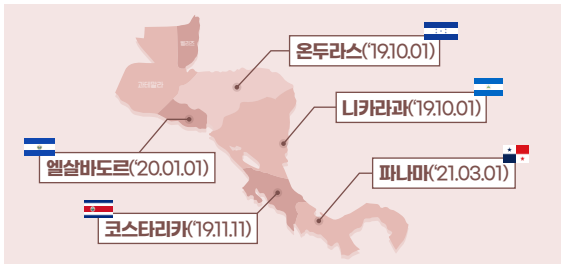


2021년 수산분야 FTA

# 한-중미 FTA 발효 3년차,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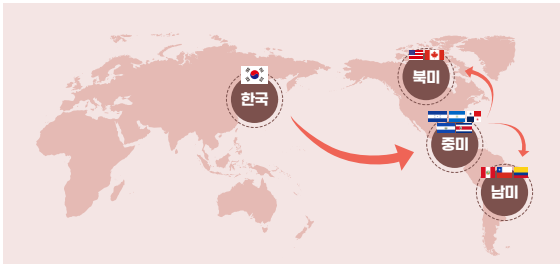




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은 **19년 10월 1일** 발효되면서 중미 신시장 창출에 한발 다가섰다.

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표조항\*에 의거, **21년 3월 1일 파나마 발효**를 기점으로 한·중미 FTA가 전체 발효되었다.

\* 협정문 제24.5조: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



한-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, 북미(미국, 캐나다)와 남미(페루, 칠레, 콜롬비아)를 연결하는 **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**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

또한,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, 중국,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## 한·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

기준		품목 수	수입액
한국 측		95.5~95.9%	98.7~100%
중미 측	코스타리카	95.2%	98.0%
	엘살바도르	95.1%	98.1%
	온두라스	95.6%	93.2%
	니카라과	95.9%	99.1%
	파나마	95.3%	99.3%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한·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%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.

**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품목(냉동 새우(TRQ) 등)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.**



특히, 파나마는 해당 FTA를 체결한 타 4개국보다 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*한국은 수산물 품목 331개의 관세를 19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\***이며, 한국의 對파나마 수산물 수입액은 연간 81만 달러로 중미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\* 한국은 고등어, 갈치, 민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함

## 2021년 對중미 수산물 수입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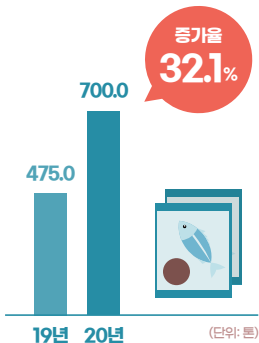
(단위: 톤, 천 달러)

구분	중미	
	수입량	수입액
평년 ('18~'20동기평균)	492.9	1,004.9
전년 ('20.1~8)	726.8	1,204.2
금년 ('21.1~8)	705.7	1,339.5
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	-2.9%	11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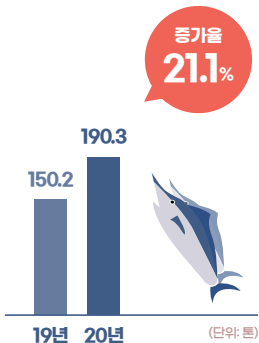
현재 2021년 8월 누적 기준 對중미 수산물 **총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.9% 감소한 705.7톤, 총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.2% 증가한 1,399.5천 달러**이다.

세부 품목별 수입은 어분, 새치 등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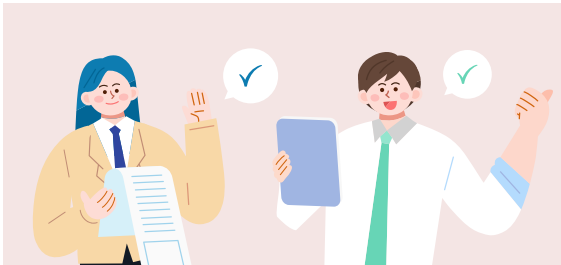
## 어분



## 새치



세부 품목별 수입은 어분, 새치 등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

한-중미의 수산물 교역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일방적인 다량어 통조림 원료 수출이었지만, 이후 중미의 새우류 및 갑각류에 對한국 수출로 전환되었다.

따라서 한-중미 FTA체결이후 수입 증가로 인해 **한국의 관련시장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시장에 한해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양허제외를 두어 보호**하였다.



한편, **지난 6월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**에 따라 이번 공동위에서는 과테말라의 가입 절차를 논의하였으며, 가입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가입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.